

작가 鄭澈

1536~1593(중종31~선조26) 조선 중기의 문인이자 정치가.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계함(季涵), 호는 송강(松江), 시호는 문청(文淸). 어려서 인종의 귀인(貴人)인 만누이와 계림군(桂林君) 유(溜)의 부인이 된 둘째 누이로 인하여 궁중에 출입하였는데 이 때, 이후 명종이 된 경원대군(慶源大君)과 친숙해졌다. 열 살 되던 해인 1545년(명종 즉위), 을사사화에 계림군이 관련되자 아버지가 유배당하였는데 배소(配所)에 따라다녔다. 51년 아버지가 귀양살이에서 풀려나자 전라도 담양으로 이주하여,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10년간을 이 곳에서 보냈다. 이 시기에 임억령(林億齡)에게 시를 배우고 김인후(金麟厚)·송순(宋純)·기대승(寄大升)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이이(李珥)·성혼(成渾)·송익필(宋翼弼)등의 유학자들과 친교를 맺었다. 17세에 문화 유씨(文化柳氏) 강항(强項)의 딸과 혼인하여 4남 2녀를 두었다. 26세 때인 1561년(명종16년) 진사시에 1등을 하였고, 이듬해 별시문과에 장원급제를 하였다.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을 시작으로 좌랑(佐郎)·현감(縣監)·전직(典籍)등을 거쳐 31세에 함경도 암행어사를 지낸 뒤, 32세에 다시 수찬·좌랑·종사관(從事官)·교리(校理)·전라도 암행어사 등을 지내다가, 40세 때인 1575년(선조 8년),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뒤, 몇 차례 벼슬을 제수 받았으나 사양하고, 43세 때 다시 조정에 나와 사간(司諫)·집의(執義)·직제학(直提學)을 거쳐 승지(承旨)에 올랐으나, 반대파인 동인(東人)의 탄핵을 받아 다시 낙향하였다. 1580년 45세 때,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으며, 이 때 ‘관동별곡(關東別曲)’과 ‘훈민가(訓民歌)’ 16수를 지어 시조와 가사문학의 대가로서의 재질을 발휘하였다. 그 뒤, 전라도 관찰사·도승지·예조참판·함경도 관찰사 등을 지냈으며, 48세에 예조판서, 이듬해 대사헌이 되었으나, 다시 동인의 탄핵을 받아 다음 해에 사직하고 고향인 창평으로 돌아가 4년 간 은거하였다. 이 때 ‘사미인곡(思美人曲)’, ‘속미인곡(續美人曲)’, ‘성산별곡(星山別曲)’등의 가사와 시조·한시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54세 때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이 일어나자 우의정으로 발탁되어 서인의 영수로서 철저히 동인들을 추방하였으며, 다음해에 좌의정에 올랐다. 56세 때 동인파의 거두인 영의정 이산해(李山海)와 함께 광해군을 왕세자로 책봉할 것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산해의 계략에 빠져 혼자 나섰는데, 그 일로 신성군을 마음에 두고 있던 인조의 노여움을 사 파직되었다. 명천에 유배되었다가, 57세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풀려나 관직에 복귀하고 사은사로 명나라를 다녀왔다. 그러나 동인의 모함으로 사직하고 58세 때 강화에서 죽었다. 작품으로는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성산별곡’ 등 4편의 가사와 시조 107수가 전한다.

三九

아마님 날 나호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두分곳 아니면 이 몸이 사라시라
하늘긋튼 恩德을 어되다혀 감스올고

*두 分곳: 두 분곳. ‘곳’은 강세조사.
*어되다혀: 어디다가, 어디에다
*감스올고: 갓졌습니다. ‘스오’는 존칭 보조어간.

아버님께서는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께서는 나를 기르시니
이 두 분이 아니시라면 어찌 이 몸이 살 수 있겠는가
하늘같은 은혜와 덕택을 어디다가 갓으리

★이 시조는 ‘훈민가’의 첫 수인데, 부의자모항(父義慈母項)을 해설한 노래로 망극한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여 효도를 다하라는 교훈적인 주제를 읊은 것이다. 초장의 내용은 ‘부생모육(父生母育)’이라는 가부장의 유교정신을 드러낸 말이다.

四〇

兄아 아으야 네 술을 분져보아
취손되 타낫판되 양즈조차 곱트슨다
흔젓먹고 자라나시니 닷믄음을 먹지마라

*아으: 아우 *술을: 살을
*취손되: 누구에게서, *양즈: 모양
*닷믄음: 탄마음

형아 아우야 네 살을 만져보아라
 누구 손에 태어났기에 모양조차 같은가
 한 젖을 먹고 자라났으니 다른 마음먹지 말아라
 ★‘형우제공(兄弟恭: 형은 아우를 우애하고 아우는 형을 공경함)’이란 주제를 노래한 것으로, 형제간에 서로 우애 있게 지내라는 뜻이다. 형제의 지극한 정의(情義)를 ‘한 젖 먹고 자랐다’라는 말로 적절히 표현하였다.

四一

임금과 百姓과 스이 하늘과 땅하로되	*아로려: 아시려고. ‘알오여’의 ‘근’변격으로, ‘오’는
내의 셜은 일을 다 아로려 하시거든	상대를 높여 말할 때 쓰는 선어말 어미.
우리들 슬진 미나리를 혼자어이 머그리	*슬진: 살찐. 원형은 ‘술지다’

임금님과 백성들과의 사이란 하늘과 땅 같이 다르지만
 임금님께서는 우리의 서러운 일을 다 아시려고 하거늘
 우리 백성인들 살찐 미나리를 어찌 혼자 먹을 수 있겠는가?
 ★군신(君臣)의 관계를 노래한 것으로, 군신간에 지켜야 할 도리가 주제이다. 즉, 지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임금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니 백성으로서는 정성을 다해 받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노래이다.

四二

어버이 사라신 제 섬길 일란 다 하여라	*사라신: 살아 계신,
지나간 後 1면 애똥다 엇지 하리	*섬길 일란: 섬기는 일을.
平生에 못쳐 못 흘일이 잇분인가 하노라	*못쳐: 다시

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때 효도를 다 하여라.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리 애통해해도 어찌겠는가?
 한 평생 다시 할 수 없는 일은 부모를 섬기는 일 뿐이다
 ★‘자효(子孝)’의 항을 해설한 것으로,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으니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를 다하라는 뜻이다.

四三

한 몸 둘해 눈화 夫婦를 삼기실사	*둘해 눈화: 둘로 나누어, *삼기실사: 생겨나게 하시어
이신 제 흠씩 늙고 주그면 혼대 간다	*이신 제: 살아 있는 동안, *혼대: 한 곳에
어되셔 망녕엇거시 눈흘기려 하노고	*망녕엇거시: 망령(妄靈)된 것이.

한 몸을 둘로 나누어 부부를 만드셨으니
 살아 있을 때는 같이 늙고 죽으면 저 세상의 한 곳으로 간다
 (이런 사이인데) 어디서 망령된 것이 눈을 흘기려 드느냐
 ★‘부부유은(夫婦有恩)’이란 주제를 노래한 것이다. 부부가 함께 해로(偕老)함을 강조한 노래이다

四四

간나회 가는 길홀 스나회 에도드시	*간나회: 여자. 뒤에 나오는 ‘스나회’와 대비시켜 쓴 말.
스나회 네는 길홀 제집이 최도드시	*에도드시: 일찌감치 돌아가듯이 *네는: 가는
제 남편 제 제집 아니여든 일흠 못지 말구려	*최도드시: 피해서 돌아가듯이, *남진: 남편

여러자가 가는 길을 남자가 일찌감치 돌아가듯이
 사나이가 가는 길을 여자가 피해서 돌아가듯이
 제 남편 제 아내 아니면 이름을 묻지 말구려
 ★‘남녀유별(男女有別)’과 남녀간의 예의범절을 주제로 한 노래이다.

四五

내 아들 孝經 읽더니 어드록 비환느니	*어드록: 얼마나	*비환느니: 배웠느냐.
내 아들 小學은 모르면 뭇출로다	*모르면: 모레면	*뭇출로다: 끝마칠 것이로다
어니 제 이 두 글 비화 어질거든 보려뇨	*어니 제: 언제	

너의 아들 효경을 읽더니 얼마나 배웠는가

우리 아들 배우던 소학은 모레면 마칠 것이로다

언제 이 두 글을 배워서 어진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겠는가

★‘자제유학(子弟有學)’을 노래한 것이다. “효경”은 효도를 가르치는 책이고, “소학”은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책이므로, 자식들에게 이 두 책을 가르쳐서 어진 사람이 되도록 길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四六

마을 사람들이 올흔일 하자꾸나	*올흔일: 옳은 일	*하자꾸나: 하자꾸나
사람이 되야나서 올치웃 못하면은	*올치웃: 옳지 못.	
뭇쇼를 갓갓갈 씌워 밥 머기나 다르라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꾸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옳지 못하면

말과 소에게 갓고깔을 씌워 밥을 먹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향여유례(鄉閭有禮:마을에 예의가 있어야 함)’를 해설한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마소나 다름없다는 뜻이다. 초장은 청유형을 통하여 옳은 일을 하자는 선행의 권유를 친근하게 나타낸 것이고, 중·종장은 말과 소에 대한 비유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四七

팔목 쥐시거든 두 손으로 받치리라	*향음주(鄉飲酒): 해마다 10월 길일(吉日)을 택하여
나갈 되 제시거든 막대 들고 조츠리라	온 고을 유생(儒生)들이 모여 향약(鄉約)을 읽고 술을
鄉飲酒 다罷호 後에 되셔가려 호노라	마시며 잔치하는 예절. 향음주례(鄉飲酒禮)

(어른이 일어나실 때) 팔목을 쥐시면 두 손으로 받쳐 드리라

나갈때가 있으시면 막대를 들고 좇으라

향음주례가 다 끝난 후에는 모시고 돌아오려 하노라

★‘장유유서(長幼有序)’를 노래한 것으로,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훈적인 내용이다.

四八

남으로 삼긴 중에 벗 궂치 有信호라	
나의 원일을 다 니려 호노매라	*원일: 그릇된 일
이 몸이 벗님곳 어니면 사름되미 쉬울가	*니려: 말하러

남으로 생긴 이 중에 벗과 같이 믿음이 가는 이가 있으라

나의 그릇된 일을 다 일러서 충고하러 하는구나

이 몸이 벗이 없다면 올바른 사람되기가 쉬울까

★‘붕우유신(朋友有信)’을 노래한 것으로, 친구 사이에는 믿음으로써 서로의 허물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도리라는 뜻이다.

四九

어와져 族下야 뱌업시 엇지 홀고	*족하(族下): 조카
-------------------	-------------

어와져 아자바 옷업시 엇지 흘고
머혼일 다 닐러스라 돌보고자 흐노라

*아자바: 아저씨여
*머혼: 험한, 어려운 *닐러스라: 말하려무나

아! 저 조카야, 밥 없이 어찌할꼬
아! 저 아저씨여, 옷 없이 어찌할꼬

곳은 일 다 말하려무나 서로 돌보아 주고자 하노라

★‘빈궁우환 친척상구(貧窮憂患 親戚相求: 빈궁하고 우환이 있으면 친척이 서로 보살펴줌)’를 노래한 것으로, 가난과 고통, 걱정거리가 있으면 친척끼리 서로 돌보아 구하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

五〇

네 집 喪事들은 어도록 즐호순다
네 딸 書房은 언제나 마치느순다
내게도 업다커니와 돌보고져 흐노라

*상사(喪事)들은: 상사와 같은 일들은 *어도록: 얼마나
*출호순다: 차리는가, 준비해 지내는가
*마치느순다: 맞추어 주겠는가.

네 집의 상사와 같은 일들은 어떻게 차려서 지내는가

네 딸의 서방은 언제나 맞추어 주려는가

내게도 없기는 하지만 돌보아 주고자 하노라

★‘혼인사상 인리상조(婚姻死喪 隣里相助: 혼인이나 상사에는 이웃이 서로 도와야 함)’을 읊은 노래이다. 상사(喪事)나 혼사와 같은 일은 이웃끼리 서로 도와서 치르고 함께 염려해 주어야 함을 가르치는 내용이다.

五一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메고 가자스라
내 논 다 밷어든 네 논점 밷아주마
올 길헤 뽕따다가 누에머쳐 보자스라

*새거다: (날이)쌌다
*점: 줌
*올 길헤: 오는 길에

오늘도 날이 다 쌌다 호미 메고 나가자

내 논 다 메고 나면 네 논도 줌 메어주마

오는 길에 뽕을 따다가 누에도 먹여 보자꾸나

★‘무타농상(無耜農桑: 농사와 잠업에 게으르지 않음)’을 해설한 것으로, 때를 놓치지 말고 농사에 힘쓸 것을 권한 노래이다. 아울러 이웃 사이의 정다운 협동정신을 일깨워 주고 있다. 농촌의 순박한 풍속이 그대로 담겨 있어, 소박함 속에서 화려한 문장보다 더 진한 향취를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정신이 나타나 있다.

五二

비록 못 니머도 남의 오슬 앗지 마라
비록 못 머거도 남의 밥을 비지마라
흔적긔 썩시른 後 1번 고쳐씻기 어려우니

*비지: 빌어먹지
*흔적긔: 한 때만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시른: 때 묻은

비록 못 입어도 남의 옷을 빼앗지 마라

비록 못 먹어도 남의 밥을 빌어먹지 마라

한 번 만이라도 때를 묻히고 나면(낙인이 찍히면) 다시 씻기 어려우니라

★‘무작도적(無作盜賊: 도적질을 하지 않음)’을 해설한 글이다. 비록 못 입고 못 먹어도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다.

五三

雙六將碁 흐지마라 訟事入 글월 흐지 마라
집 배야 무슴하여 남의 怨讐될 줄 엇지
나라히 法을 세오샤 罪인 3 줄을 모로는다

*쌍륙(雙六): 오락의 하나.
*배야: 망쳐

쌍륙이나 장기 따위를 하지 마라. 송사글을 써 올리지 마라.
집을 망하게 하여 무엇하며, 남의 원수가 될 줄을 왜 모르나
나라가 법을 세워서 죄를 다스리는 줄 모르느냐?

★‘무학도박 무호쟁송(無學賭博 無好爭訟: 노름을 배우지 말고 송사를 즐기지 않음)’을 노래한 것으로, 도박과 소송을 즐기지 말고 본업에 노력할 것을 권한 내용이다.

五四

이고 진 저 늙으니 짐부러 날을 주오나
늙 저멋거니 돌히라 무거울가
늙기도 설웨라 커든 짐을 조차 지실가

*저멋거니: 젊었으니

*설웨라 커든: 서럽다고 하겠거늘

머리에 이고 등에 진 저 늙은이여 그 짐을 풀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으니 돌이라도 무거울까

늙는 것도 서럽다고 하겠거늘 무거운 짐조차도 지셔야 하겠습니까?

★‘반백가불부대어도로의(班白者不負戴於道路矣: 노인이 도로에서 짐을 지지 않게 함)’을 읊은 것으로, 노인을 도와주고 공경하라는 뜻이 담긴 글이다. 경로사상(敬老思想)을 일깨워주기 위한 노래로, 초·중장에서는 짐을 이고 진 노인의 힘겨운 모습을 나타내었고, 종장은 그러한 늙음에 대한 연민으로 노인을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右十六章見警民編 <이상 경민편(=훈민가)¹⁾ 16수를 실었다>

*경민편(=훈민가): 선조 13년 송강이 강원도 관찰사로 있을 무렵 백성들을 계몽하기 위해 지은 16수의 연시조.

五五

江原道 百姓들아 兄弟訟事 마라스라
종뽕뽕뽕는 얻기에 쉽거니와
어대가 또 어들거시라 흘깃할긔 흐느다

*형제송사(兄弟訟事): 형제간에 고소하는 것

*종뽕뽕뽕: 노비와 전답

*흘깃할긔: 눈을 자꾸 흘기는 모양

강원도 백성들아 형제간에 송사하지 마라
종이랑 밭이랑은 얻기가 쉽지만

(형제간의 우애는) 어디 가 또 얻으려고 흘깃흘깃 하느냐

★송강이 수령으로 있던 강원도 백성들에게 형제간의 재산권을 다투지 말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다. 서로 반목(反目)하는 모습을 ‘흘깃할긔’로 표현한 것이 재미있다.

五六

남진 죽고 우는 눈물 두 젖에 느리 흘리
젖마시 뽕다하고 子息은 보채거든
저놈아 어넉안호로 계집되라 흐느다

*남진: 남자, 남편 *젖: 젖

*뽕다: 짜다

*저놈: 여기에서는 ‘일반사람’을 가리킨다.

남편 죽고 나서 우는 눈물이 두 젖에 흘러내리니

1) 연대: 선조13년(1580年)

형식: 평시조, 연시조(16수로 됨)

성격: 훈민가(訓民歌), 교민가(敎民歌)

표현: 설의법, 청유어법(請誘語法)

주제: 유교의 윤리권장

출전: 경민편(警民篇), 경술을축본

젓 맛이 짜다며 자식은 보채는데
 저놈아 무슨 심정으로 여자가 되려고 하느냐
 ★여자됨을 한탄하는 노래를 주제로 한 노래이다.

五七

光化門 드리드라 內兵曹上直房에	*내병조(內兵曹): 병조에 속하는 관청.*상직방: 숙직실
하룻밤 다섯更에 스물 석點치는 소리	*그 덧에: 그 때에, 그 사이에
그 덧에 陳跡이 되도다 꿈 이론 듯 하여라	*진적(陳跡): 지나간 흔적, 지나간 묵은 자취

광화문 달려들어가 내병조의 상직방에서 숙직을 하었는데
 하룻밤 다섯경에 스물 석 점치는 소리
 그 사이에 지난 일이 되어버렸구나. 꿈 이론 듯 하여라
 ★송강이 궐내(闕內)에서 숙직하던 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지은 글. 벼슬을 지내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五八

蓬萊山 님 계신의 五更천 나쁜 소리	*님 계신덕: 임금님이 계시는 곳
城 너머 구름지나 客窓에 들리느다	*나쁜 소리: 남은 소리. 즉 여운(餘韻)
江南에 내려웃 가면 그림거든 엇지리	*내려웃: 내려만

봉래산 임 계신 곳에서 오경을 알리는 북소리의 여운이
 성을 넘고 구름을 지나 객창에 들리는구나
 강남에 내려만 가면 그리워지면 어떻게 할까
 ★오경을 알리는 징 소리를 연상하면서 궁궐을 떠나 낙향하는 아쉬움을 읊은 시조이다. 여기서 강남은 창평(昌平)을 가리킨다.

五九

뜯 나물 데운물이 고기도곤 마시이세	*뜯 나물: 썬 나물, *데운 물: 끓인 물
草屋 조븐 줄이 외 더욱 내 分이라	*내 분(分)이라: 내 분수(分數)라
다만당 님 그린 타스로 시름겨워 하노라	*다만당: 다만, *타스로: 탓으로

썬 나물과 끓인 물이 고기보다 맛있네
 좁은 초옥이 더욱 내 분수에 맞는 것이라
 다만 임을 그리워하는 탓으로 시름겨워 할 뿐 이다
 ★시골에 파묻혀 빈궁한 생활을 하면서도 모두 자신의 분수인 양 생각하며 살지만, 연군(戀君)의 정은 금할 수 없다는 뜻이다.

六〇

劉伶은 언제 사름고 晉적의 高士로다	*유령(劉伶):진나라 때 술 잘 먹고 시 잘 짓던 선비.
季涵은 외워런고 當代에 狂生이라	*고사(高士): 인격이 고결한 선비,
두어라 高士狂生을 무려 무슴하리	*광생(狂生): 미치광이

유령은 언제 사담인고 진나라 때의 인격이 고결한 선비이다
 계함은 그 누구이던가 이 시대의 미치광이라
 두어라 고결한 선비와 미치광이를 물어서 무엇하겠는가
 ★송강 자신을 은근히 진나라 때의 고사인 유령에 비겨 본 노래이다.

六一

이바 이집 사름아 이 세간 엇지 살리	*이바: 이봐, 여보게. 하기 위해서
숫벼 다 쓰리고 쪽박귀 다 업피야	*세간: 세상, *숫벼: 식량, *쪽박귀: 바가지, 쪽박
하물며 기울계 대 니거든 누를 밧고 살리	*기울계: 기울어지게, 비스듬히

여보게 이 사람아 이 세상을 어찌 살려 하는가?

양식은 떨어지고 쪽박도 다 없구나

하물며(가장이) 비틀거리고 다니니 누굴 믿고 살겠는가?

★양식도 떨어지고 가재도구도 점점 없어지는데 남편은 술만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딱한 가정을 동정하는 시조이다. 그러나 다음 시조와 비교해 보면 송강 자신의 처지를 읊은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六二

기물제 대 니거니 쏜다 족바퀴 업거니 쏜다

*대 니거니 쏜다: 다니건 말건

비록 이 세간 板蕩 홀 만정

*판탕(板蕩): 집의 재산을 탕진하는 것

고운님 괴기웃 괴면 그를 밋고 살리라

*괴기웃: 사랑하기만. 원형은 '괴다'

비틀거리고 다니는 말든, 쪽박이 없건 말건

비록 이 세간살이가 다 없어질망정

고운 임이 사랑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를 믿고 살리라.

★앞의 시조에 대한 답사 형식으로 지은 것으로, 아무리 가산을 탕진할망정 임의 사랑만 받는다면 그를 믿고 살겠다는 뜻이다. 여기서의 '고운 임'도 임금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므로,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임금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연군의 정을 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六三

므스 일 이루리라 十年지이 너를 조차

*지이: 짓기(作), 혹은 까지, *외다 마다: 그르다 싫다

내 혼일 업시셔 외다 마다 ㅎ느이

*절교편(絶交篇): 절교를 통고하는 글

이제야 絶交篇 지어 餞送 ㅎ되 엇더리

*전송(餞送): 작별 잔치를 베푼 뒤 보냄

무슨 일을 이루겠다고 십년동안 너를 따라 다녔건만

내가 한 일이 없어서 그르다 싫다 하니

이제는 절교편을 지어 전송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 노래는 술을 두고 지은 것이다. 술을 끊어 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마음을 한 번 가져본 것이리라. 송강의 한 시 가운데 '이단주(已斷酒): 이미 술을 끊고 나서'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송강은 40대 중반 이후에 술을 끊고 지낸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